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⑥ 비유품 ④ 화택유

부처님께서 '지금까지는 성문승(聲聞乘)·연각승(緣覺乘)·부살승(菩薩乘)의 3승(三乘)을 분별해서 설했다. 이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한 것이니 3승 모두가 부처가 되기 위한 수단(方便)일 뿐, 사실은 모두가 성불을 위한 하나의 가르침 즉 1불승(一佛乘)이다'고 천명하시며, <법화경>의 유명한 일곱 가지의 비유(七喻) 가운데 하나인 '화택의 비유(火宅喻)'를 설하신다. 원래 <법화경>에는 열 여섯 가지의 비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명한 것이 일곱 가지다. 그러면 '화택유' 즉 '삼계화택유(三界火宅喻)'를 들기로 하자.

'어느 마을에 자식 많고 나이 많은 억만장자가 있었다. 그는 넓고 큰 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이미 낡아서 폐가처럼 형체

사바세계는 불타는 집

3승 가르침으로 중생 불길서 구해내

해 있었다. 새들이 집을 짓고 있었으며 뱀들도 서식하고 있었다. 큰 저택이지만 무슨 까닭인지 출입구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불이 나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장자는 재빨리 문밖으로 뛰쳐나왔으나 그가 사랑하는 수많은 아이들은 불이 난 것도 모르고 집 안에서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몸에 대처하는 위험을 알지 못하므로 피할 마음도 없었다. 아버지인 장자의 마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위험하니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밖에서 크게 소리쳤으나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이 났다는 것이 무엇이며 불이 집을 태운다고 하는데 그 집이란 무엇인지, 또 불에 타서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그저 집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문밖의 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장자인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구해내겠다고 생각했으므로 아이들이 평소엔 왼

소의 수레는 그림자도 없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무서운 모습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쉬었으나 아이들은 이에 승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다'며 막무가내로 아버지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약속한 양·사슴·소가 끄는 수레보다 더 크고 훌륭하며 날쌘, 흰 소(白牛)가 끄는 수레를 아이들에게 전부 나눠 주었으므로 아이들은 모두 만족했다.

이상이 장자화택(長者火宅) 또는 삼계화택(三界火宅), 삼계화택(三界火宅)의 비유다. 불난 집(火宅)은 3계(三界) 즉 사바세계를, 아이들은 중생을, 장자는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다. 양·사슴·소의 세 가지 수레는 각각 성문승·연각승·보살승인 3승을 비유한 것이며, 대백우(大白牛)는 1불승(一佛乘)에 비유한 것이다. 모든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1불승을 3승으로 나누어 설한다고 하시며 앞의 방편품에서 설한 3승방편(三乘方便) 1승진실(一乘眞實)의 가르침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무설정사 조설



그림 · 문병성

하나가 전체 전체가 하나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수주
이완과 평형

단단한 정육면체의 강철 상자의 한쪽 면에 작은 구멍을 뚫고 일정한 크기의 탄환을 일정한 속도로 매초마다 하나씩 상자 안으로 쏘아 넣는다고 하자. 그리고 이때 탄환이 강철 벽에 부딪칠 때의 입사각과 튀어나오는 반사각이 같고, 또 탄환의 운동 방향은 바뀌지만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지구의 중력이 무시된다. 그래서 강철 상자 속에 들어간 탄환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상자 속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가정한다. 이러한 무중력 상태에서 일어나는 완전 탄성 충돌 실험에서 우리는 탄환에 관한 초기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1시간 후에 그 탄환이 어느 위치에 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10

초 후에 두번째 탄환을 쏘아 넣으면 이것이 강철 상자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먼저 발사된 탄환과 충돌을 일으키며 두 탄환의 진로가 엉뚱하게 바뀌 수 있다. 그러면 첫번째 탄환의 위치와 운동 방향의 추정이 점차 불확실해진다. 2시간 후에 탄환을 100개 쏘아 넣고 난 후 첫번째 탄환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알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100개의 탄환들 사이에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각 탄환의 초기 정보가 완전히 상실돼 어느 탄환이 몇번째에 발사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완전한 무질서 상태이며 이때 상자 속의 탄환들은 이완 상태에 있다고 한다.

무질서한 각 탄환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정보가 사라져 초기의 질서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보면 이 무질서는 곧 조화로움이다. 예를 들어 예쁜 조각품을 정원에 둔다고 하자. 비바람을 맞으며 오랜 세월을 지나면 점차 그 모양과 색깔이 변해 가다가 언젠가는 부서져 형체조차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 세계가 인간의 유위적 견지에서 보면 무질서해 보이나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안정된 질서를 가진 세계이다. 우리는 어떤 물체나 인위적 현상이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엔트로피의 증가는 자연적 질서의 증가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상의적 수수 관계를 통해 개체들의 구별이 불가능해지면서 모두가 평등한 보편적 상태로 이완되면 개체들이 지닌 초기의 고유 특성이 모두 사라지므로 개별적 고유 특성을 지닌 존재자는 이상 더 존재하지 않게 된다(非有). 그렇다고 해서 개체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非無). 이처럼 비유비무(非有非無)인 상태가 고유 특성을 지닌 대립적 관계를 떠난 이완상태이며 이를 통계적 평형상태라고도 한다. 여러 개체들이 모인 집단이 이완상태에 이르면 개체들이 가진 초기의 고유 특성이 모두 사라지면서 집단 전체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때 개체의 특성은 집단의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

한 성단이 안정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작은 성단이 가까이 지나면서 섭동이 미칠 경우, 성단은 역학적 평형이 깨지면서 성단 내 별들은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별들이 서로간의 조우, 섭동을 통해 점차 안정된 질서를 찾아가면서 성단은 새로운 평형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성단의 평형상태가 깨어진 후 다시 새로운 평형상태에 이르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완 시간이라 하며, 이 시간이 길수록 성단은 더욱 안정된 집단이다.

인간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람에게 따라 화가 나면 이것이 몇 일 내지 몇 주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지나면 화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다. 화가 쉽게 풀리는 사람은 이완 시간이 짧은 사람으로 화를 잘 낼 수 있는 불안정한 성품을 지녔고, 화가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이완 시간이 긴 사람으로 여지간해서는 화를 잘 내는 안정된 성품의 소유자다. 그러면 우리 나라 전체의 이완시간은 얼마나 될까?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형 사고가 생길 땐 야단법석을 떨다가도 며칠 지나면 모두 잊어버리고 조용해진다. 결국 우리 사회의 이완 시간은 뜨겁게 달구어진 빈 냄비가 금방 식어버리는 정도의 짧은 시간이다.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차별하고 분별하기 쉽지만, 긴 세월 동안 섭동을 주고받다 보면 대립이 사라지고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이치에서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되는 불법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변견(邊見)을 벗어나 선과 악, 사랑과 미움 같은 대립되는 양쪽을 모두 여의면서 올바른 이치를 찾아간다. 이처럼 이완의 세계는 자연이나 인간 사회에서 가장 조화롭게 살아가는 불법의 세계이다. 나를 잊지 않고 어찌 남을 잊을 수 있으며, 남을 잊지 못하고 어찌 나를 알 수 있겠는가?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티베트 종교자유 보장” 중 정부 공언은 거짓말

지구촌 불교 / AP기자 '쿰번사원' 실태 보도

중국 정부의 말처럼, 중국 내 티베트 스님들은 자유롭게 수행하고 있을까? 최근 중국 칭하이(淸海) 지역에 있는 쿰번(Kumbun) 사원을 탐방한 에이피(A.P) 통신의 크리스토퍼 보딘(C. Bodeen) 기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여전히 티베트 스님들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서구 기자단의 방문은, 1959년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스님들의 대규모 망명 이후 중국 정부가 주도해 온 티베트 불교계 개혁의 성과를 서방 언론에 알려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40여 년 간 중국 정부는 불교계 개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불교사원과 교육체계를 정비했다.

C. 보딘 기자는 쿰번 사원 방문 관련 보도에서 "중국 정부는, 기자단이 쿰번 사원에서 스님을 취재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기자단을 설득하지는 못했다"며 기자단의 입장을 전한 다음, "쿰번 사원에서 중국 공안과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자단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티베트 스님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쿰번 사원의 스님들.

공안·관리 사원상주하며 스님 감시 종교학교 세워 전통말살 세뇌 교육

이는 서구 기자단이 쿰번 사원을 방문한 날에도 10여 명의 무장 공안들이 경찰복을 흔들며 경내를 서성거렸던 점과, 스님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중국 정부의 관리가 사원 내 상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티베트 스님들은 "달라이 라마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당황하면서, "이제 사원을 둘러보자"며 인터뷰를 피하려고 했다고 C. 보딘 기자는 전했다.

그러나 서구 기자단과 동행한 중국 정부의 관리가 자리를 잠시 비우자, 티베트 스님들은 의명을 요구하며 "쿰번 사원의 외형은 그동안의 증·개혁으로 많이 변했지만, 중국 정부의 탄압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4백40년 전에 세워진 쿰번 사원은 13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로 밝혀진 텐진 가초(Tenzin Gyatso, 14대 달라이 라마가 공부했던 곳)이다. 중국과 티베트 망명정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칭하이 지역의 대표적 사찰이다. 지난 6년간 티베트 망명정부는 티베트와 중국의 서면 국경 지역인 칭하이에 대한 티베트의 자치권을 인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반면 중국은 티베트 망명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칭하이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티베트 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동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쿰번 사원 경내에 '종교 학교(Religious school)'라는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고, 칭하이 지역의 티베트 스님들을 정기적으로 소집해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의 전통을 말살하는 내용을 수록한 교재를 가지고 세뇌를 해 왔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외판 섬 스님이 일구는 따뜻한 삶의 뜰

스님은 얼핏 수줍고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큰 스님들의 훌륭한 인품과 고된 수행 모습에서 느끼는 감동과는 또 다른 순수한 감동을 읽는 이에게 선사한다. — 조선일보

스님은 무척이나 솔직해서, 가끔씩 빙그레 웃음 짓게 만듭니다.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 이야기의 경우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스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었겠어요? 읽다 보면 이분이 스님이란 사실을 믿게 만듭니다. — pssmm(YES24 독자서평)

내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글 속에 묻어 있는 진솔함 때문이었다. 갖가지 소용과 사람에게 치일 대로 치인 내게 그 책은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 밧똥(모닝365 독자서평)

| 푸른 섬 비진도의 작은 스님 이야기 |

꽃담

해안 스님 지음 | 국판 변형 | 237쪽 | 값 7,500원

전화(02)588-0833 팩스(02)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각박한 세상살이, 허허허루 등 매일려 기듯 숨 가쁩니다.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흠어진 마음을 모으는 법을 알려 줍니다.

벽 틈으로 바람 들어오듯 마음 틈으로 욕심 들어온다

이욱태 외 지음 | 신국판 | 269쪽 | 값 7,000원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에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거울과도 같이 마음을 비춰 주는 책.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릴 때는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

유종호 외 지음 | 신국판 | 251쪽 | 값 6,000원

느림과 여유로 돌아보는 나와 세상. 나를 바로 찾고 세상을 바로 보고.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한 몇 가지 대답들.